

지역별 특수교육시설 정비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tenance status of Special Education Facility

임창현*

Lim, Chang-Hyun

김성룡**

Kim, Sung-Ryong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school considering the rights of disabled students to receive education and the principle of fair regional place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deviation of regional maintenance status of special educ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and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to provide desirabl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in the future.

As a research method, the main status and maintenance index for each region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status of each special education subject and the disability area by using the statistics and facility dat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Policy Divi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each provi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large cities tended to rely on special classes and general classes due to the lack of facilities at special schools, and local cities showed uneven results for each disability area and supplemented the system lacking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overall evaluation, special education facilities have not yet been leveled across the country.

키워드 : 지방도시, 특수학교, 특수학급, 정비현황

Keywords : Provincial Cities, Special school, Special class, Maintenance status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특수학교는 1960년대 일부 학교가 정비된 후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어 학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는 특수학교 건립이 증가되지 않고 기존의 학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시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 이후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안정화된 1980년대 중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이후 특수학교 건립이 확연히 증가하게 되어 양적으로 충족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충족보다는 질적인 시설 설계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정비와 더불어 양적으로는 거의 안정세를 보이

* 국립환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전공, 석사과정

** 국립환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강사, 공학박사
(교신저자: s_kim@hknu.ac.kr)

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시설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영역별로의 지역적 편차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정한 지역 배치 원리를 고려한 특수교육시설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시설의 지역별 정비현황의 편차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설설립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정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연도별 추이,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영역 등의 국내 특수교육의 주요현황을 파악한다.

(2) 지역별 특수교육의 현황을 통해 특수교육시설의 분포 및 과부족 등의 정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한다.

(3) 지역별 특수학교의 장애영역별 현황을 통해 지역 편차를 확인하고, 광역별로 대응하는 정비체제 등을 도출한다.

I-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교육부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정책과, 각 시도교육청의 통계자료 및 제공받은 시설자료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및 시설의 주요현황을 도출하였고, 특히,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영역별 현황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정비현황을 파악하고, 정비지수를 산출하였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증여부의 파악과 지역별로 구체적인 대응정책은 반영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II. 국내 특수교육시설의 주요현황

II-1. 연도별 특수교육시설 추이

먼저 2019년 현시점에서 특수교육시설의 주요현황(1)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시설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1)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특수학교수와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이하, '일반학급'이라 칭함) 대상자수는 큰 변동은 없지만,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하, '특수학급'이라 칭함)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 학생 수는 그 증가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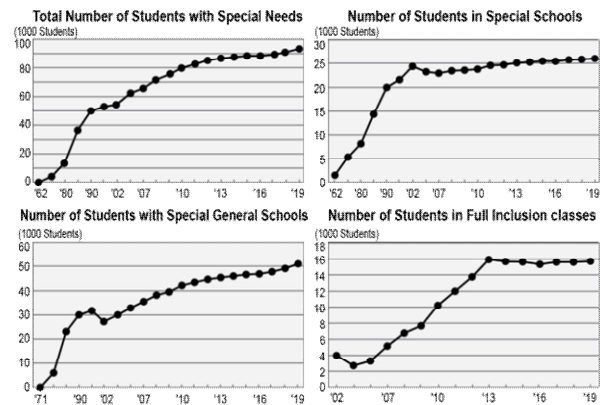


Figure 1. Student of special education(By total and education) trend

전체적으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수의 증가에 비교적 비례하는 것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증가이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급의 학생 수는 최근 7년간 두드러지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2) 연도별 특수학교 수(Figure 2)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전국의 100여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었고, 2002년 이후에는 공립학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2019년 현재 177개교의 특수학교 중 사립이 91개교, 공립이 81개교, 국립이 5개교이다. 2002년 이후 사립학교는 4곳이 증가하였으나, 공립학교는 37개교 학교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특수교육 수요에 대해 국가가 시설정비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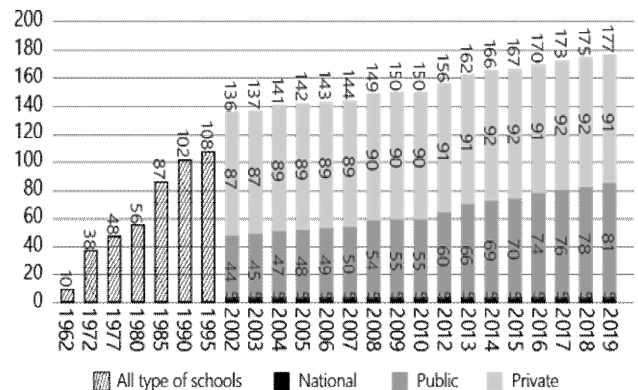


Figure 2. Status of special schools by year

II-2.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유형별 현황

(1) 2019년 6월 기준 교육환경별 대상자 현황을 보

1)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19.6). 2019 특수교육통계, 일 부발췌 및 편집

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54.7%(50,812명)가 특수학급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는 28.0%(26,084명), 일반학급 16.9%(15,687명) 순을 보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01년도부터 설립되어 현재는 375개소(0.4%)가 개설되어 있다.(Table 1, Figure 3) 전체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by facility and type of disability (2019.6)

분류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명)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수	26,084 (28.1%)	50,812 (54.7%)	15,687 (16.9%)	375 (0.4%)	92,958	
장애유형별 학생 수	시각장애	1,221 (63.0%)	268 (13.8%)	444 (22.9%)	4 (0.2%)	1,937
	청각장애	709 (22.0%)	717 (22.2%)	1,772 (54.9%)	27 (0.8%)	3,225
	지적장애	14,205 (28.6%)	30,996 (62.5%)	4,384 (8.8%)	39 (0.1%)	49,624
	지체장애	3,730 (36.6%)	3,791 (37.2%)	2,574 (25.2%)	105 (1.0%)	10,200
	정서행동장애	210 (9.6%)	1,314 (60.2%)	658 (30.2%)	-	2,182
	자폐성장애	5,424 (41.4%)	6,832 (52.1%)	848 (6.5%)	1 (0.0%)	13,105
	의사소통장애	134 (6.1%)	1,203 (54.6%)	867 (39.3%)	-	2,204
	학습장애	17 (1.2%)	910 (64.6%)	482 (34.2%)	-	1,409
	건강장애	16 (0.9%)	177 (10.0%)	1,570 (89.1%)	-	1,763
	발달지체	418 (5.7%)	4,604 (63.0%)	2,088 (28.6%)	199 (2.7%)	7,309

※전체 학생 수 = 특수학교 학생 수(1962년~) + 특수학급 학생 수(1971년~) + 일반학급 학생 수(2000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수

전체 학급수의 비율을 보면, 84.1%의 학급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존재한다. 학급당 평균 6인 규모의 특수학교 학급과 특수학급의 전체 현황을 비교해보면 보면(Table 2), 특수학교의 학급 수(4,843)는 특수학급 수(11,105)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Status of Special Education Facility Environment in Korea(2019.6)

분류	특수 학교 (개교)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명)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학교 및 센터수	177	8,200	7,777	198	11,689
		11,314			
학급수	4,843	11,105	14,884	72	30,904

(2)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가 전체의 53%(49,624명)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발달지체포함)가 19%(17,509명), 자폐성장애 14%(13,105명), 청각장애 3%(3,225명) 순을 보였다(Figure 3). 최근 경향으로 자폐성장애, 발달지체장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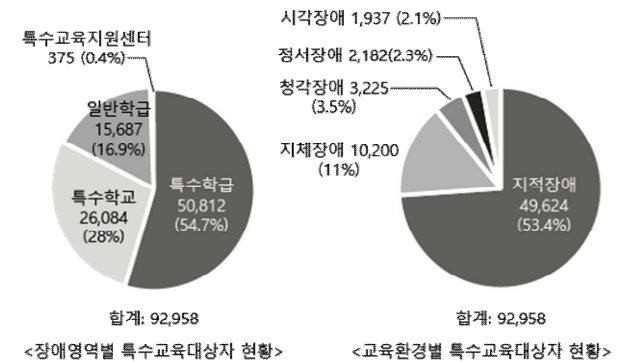


Figure 3. Statu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 by type of disability and Environment(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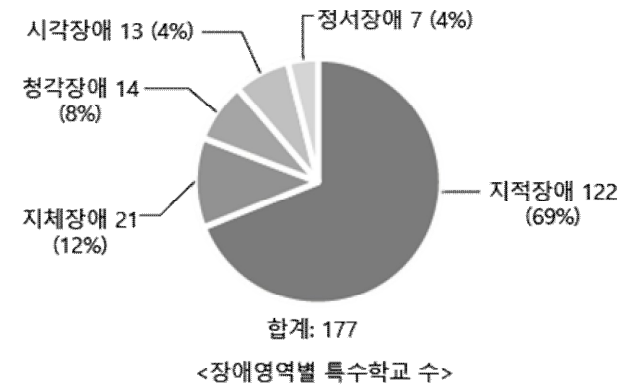


Figure 4. Status of special schools by type of disability(2019)

2) 교육부(2019.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7

그리고 특수학교(177개교) 중 장애영역별 학교를 분류하면, 지적장애 122개교(69%), 지체장애 21개교(12%), 청각장애 14개교(8%), 시각장애 13(7%) 순을 보이며, 이것은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과도 비례한다(Figure 4).

III. 지역별 특수교육환경의 정비현황

본 장에서는 특수교육시설이 지역별로 알맞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지역별 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결과는 각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별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환경의 정비수준을 확인하였기에 시설 및 대상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다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III-1.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분석

(1) 지역별 특수교육시설별 대상자 수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학생 수 분포를 보면(Table 3),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인구에 비례해서,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 서울, 부산, 경남 순을 보인다. 하지만, 특수학급의 학생 수를 보면, 경남이 부산보다 1000여명이 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전북과 전남을 비교해 봐도 특수학급의 불균등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별 특수교육 환경별 대상자 비율

지역별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대상자 비율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가 36%이고 이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남은 특수학교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이로 인해 충남의 특수학급 비율이 67%로 가장 높다.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의 경우는 특수학교의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타 지역에 비해 특수학급의 비중이 적고(46% 이하), 상대적으로 일반학급의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수학급의 비율이 60% 이상인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지역은 대체적으로 특수학교의 비율이 25% 이하를 보인다.

각 지역별 특수교육환경별 대상자 현황을 종합해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비율에서 강한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즉, 특수학교의 정비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특수학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결과를 알 수 있다.

Table 3.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by Region (2019.6)

도시	총인구 (천명)	특수학교 학생수	특수학급 학생 수	일반학급 학생수	학생계 (명)
서울	9,705	4,362 (34%)	6,246 (49%)	2,036 (16%)	12,644
부산	3,400	1,802 (30%)	2,743 (45%)	1,505 (25%)	6,050
대구	2,450	1,591 (33%)	2,044 (42%)	1,228 (25%)	4,863
인천	2,939	1,535 (26%)	3,345 (56%)	1,125 (19%)	6,005
광주	1,493	1,026 (36%)	1,321 (46%)	524 (18%)	2,871
대전	1,518	1,023 (32%)	1,760 (54%)	461 (14%)	3,244
울산	1,154	804 (31%)	1,266 (49%)	501 (19%)	2,571
세종	304	145 (25%)	364 (62%)	74 (13%)	583
경기	13,031	4,862 (22%)	13,824 (64%)	3,039 (14%)	21,725
강원	1,521	844 (29%)	1,593 (55%)	439 (15%)	2,876
충북	1,619	1,264 (32%)	2,076 (52%)	629 (16%)	3,969
충남	2,180	1,067 (23%)	3,105 (67%)	441 (10%)	4,613
전북	1,820	1,135 (31%)	1,710 (46%)	851 (23%)	3,696
전남	1,790	1,110 (29%)	2,455 (64%)	264 (7%)	3,829
경북	2,674	1,460 (30%)	2,569 (52%)	911 (18%)	4,940
경남	3,356	1,605 (24%)	3,730 (57%)	1,262 (19%)	6,597
제주	653	449 (30%)	661 (44%)	397 (26%)	1,507
계	51,607	26,084 (28%)	50,812 (55%)	15,687 (17%)	92,583

※ 지역별로 특수교육센터 및 순환 교육 등의 일부 특수교육대상자는 본 데이터에서 제외함.

III-2. 지역별 특수교육시설 정비현황분석

(1) 지역별 특수학교 정비현황

먼저 지역별 특수학교의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수는 경기도가 36개교, 서울이 30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와 울산이 각각 3, 4개교로 보유수가 적은 지역에 속한다(Figure 4). 단, 신도시개발지역인 세종시(특수학교 1개교)는 장애아동 출현율이 낮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역별 특수학교 정비지수와 소요지수
여기서, 특수학교의 정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학교의 적정 학생 수의 정원을 150명으로 가정³⁾ 하고, 지역별 특수학교학생수를 150으로 나누어 특수학교 정비지수를 산정하였다(Figure 4). 즉, 지역별로 적정 특수학교의 기준정원을 산정하여 재편성을 한다면 현재 지역별 특수학교의 정비 상황을 정비지수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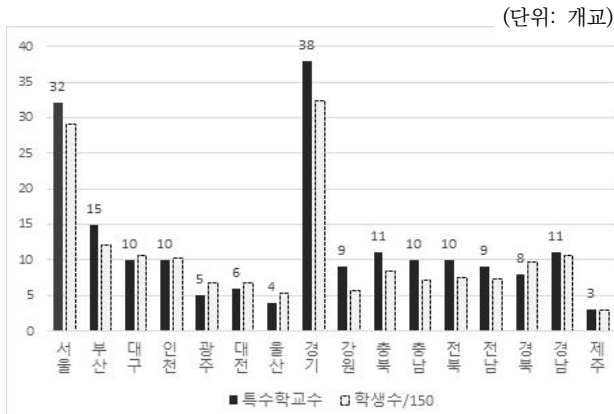


Figure 4. Maintenance Index and Number of Special Schools by Region (per 150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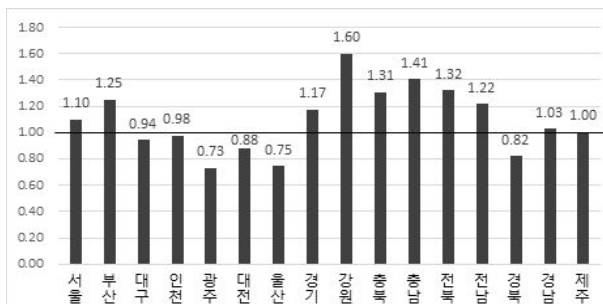


Figure 5. Special School Demand Index by Region

그리고 현재 지역별 학교 수를 정비지수로 나누어서 '소요지수'를 산정하였다(Table 4).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의 경우 소요지수가 1이 되지 않으므로 학교 수가 부족한 평가가 가능하다.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므로 절대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지역거점 광역도시가 소요지수가 낮은 경향을 알 수 있다. (Figure 5)

3) 150명당 특수학교 정비지수 산정: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을 살펴보면, 초중(정원6명), 고등(정원7명)이 두 학급씩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1학교당 24학급 150명으로 산정하였다.

(3) 지역별 특수학교 1인당 면적과 학급당 면적으로 보는 정비현황

본 항에서는 지역별로 특수학교의 학생 1인당 면적과 학급당 면적⁴⁾을 통해 교육환경의 정비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4. Regional special school per area and per class area (2019)

지역	특수학교 총 연면적(m ²)	특수학교 학생 수	학급수	학생 1인당 면적(m ²)	학급당 면적(m ²)
서울	237,542	4,362	801	54.5	296.6
부산	105,571	1,802	352	58.6	299.9
대구	84,799	1,591	274	53.3	309.5
인천	92,076	1,535	283	60.0	325.4
광주	44,553	1,026	197	43.4	226.2
대전	62,068	1,023	168	60.7	369.5
울산	46,396	553	157	83.9	295.5
세종	10,606	145	30	73.1	353.5
경기	276,021	4,862	867	56.8	318.4
강원	106,098	844	176	125.7	602.8
충북	71,060	1,264	257	56.2	276.5
충남	80,497	1,067	205	75.4	392.7
전북	54,099	1,135	224	47.7	241.5
전남	64,790	1,110	192	58.4	337.4
경북	69,625	1,460	251	47.7	277.4
경남	92,472	1,605	315	57.6	293.6
제주	16,580	449	94	36.9	176.4
합계	1,514,852	25,833	4,843	평균 58.6	평균 312.8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 1인당 면적은 평균 58.6m², 학급당 면적은 312.8m²가 도출되었다. 1인당 면적과 학급당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로 각각 125.7m², 602.8m²로 평균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보였다. 1인당 면적과 학급당 면적이 가장 작은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 면적이 각각 36.9m², 176.4m²로 평균의 절반가량을 보였다.

학생 1인당 면적만 보면, 강원도를 비롯해 울산, 충남, 세종지역이 학생 1인당 70m² 이상으로 특수학교 면적대비 학생의 밀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위 결과를 학급당 면적과 대비해 보면, 울산의 경우 1인당 면적이 높음(83.9m²)에 비해 학급당 면적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295.5m²를 보였다. 이것은 울산의 경우 특수학교의 학급 규모보다 학생 수가 적은 경향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학급당면적은 학교 연면적에서 1개 학급이 차지하는 면적을 나타낸다. (산술식: 학교 연면적/학급수)

반면에 제주, 광주, 전북, 경북 지역은 학생 1인당 50㎡ 이하로 특수학교 내 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위 결과를 학급당 면적과 대비해 봐도, 학생 1인당 면적인 낮은 지역은 학급당 면적도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므로 학생 1인당 면적이 50㎡ 이하로 낮은, 즉 밀도가 높은 지역의 특수학교는 교육환경의 균일화를 위해서 학교 증설 또는 증축이 소요된다.

(4)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정비현황

여기서 일반학교에 설치되어있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교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조사된 35개교의 초중고등학교의 면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Table 5). 학생 1인당 면적은 초등학교가 9.7㎡, 고등학교가 11.07㎡로 고학년 학교일수록 면적이 크다. 전체 평균 학생 1인당 면적은 10.16㎡로 특수학교 58.6㎡와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은 특수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6명 정도이고, 일반학교는 평균 30명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로 보인다.

Table 5. Status and Area by School Class in General School (2014)

학교급	평균 학급수	평균 학생수	평균 연면적 (㎡)	학생 1인당 면적(㎡)	학급당 면적 (㎡)
초	29	1,015	9,841	9.7	339.4
중	29.4	1,029	10,028	9.74	341.1
고	30.5	1,066	11,804	11.07	387.6
전체평균	30	1,035	10,511	10.16	355.45

*한국교육개발원(2014), 학교신설비 예산지원 기준 마련 -교부면적 및 교부단가-

반면에 평균 학급당 면적을 보면, 일반학교의 전체 평균이 355.45㎡로 특수학교(312.8㎡)가 오히려 작은 면적임을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30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특수학교의 소요정비수준으로써 일반학교의 학급당 면적 수준 정도는 특수학교의 학급당 면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1개 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공간(특별교실, 치료교실, 공유공간 등)이 더욱 증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5) 지역별 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특수교육 정책을 고려한 재구성 제안

먼저 특수교육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유아 단계(유

초등부)에서는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 등으로 통합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통합교육지원시설 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중고등부는 직업교육 등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⁵⁾

여기서 2019년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학교급별로 분류하면 Table 6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현황을 보면, 영유아단계의 유초등부는 47,612명으로 51.2%이며, 중고등부는 45,346명으로 48.8%를 보인다.

Table 6. Statu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by Region and School Level (201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861	5,579	2,608	3,731
부산	511	2,728	1,204	1,607
대구	287	2,045	999	1,543
인천	470	2,889	1,106	1,543
광주	156	1,266	567	882
대전	289	1,302	613	1,053
울산	155	1,118	520	786
세종	96	253	102	132
경기	1,626	9,881	4,335	5,960
강원	160	1,219	567	941
충북	286	1,615	781	1,299
충남	365	2,125	843	1,290
전북	298	1,531	718	1,149
전남	185	1,716	818	1,119
경북	278	2,101	1,022	1,575
경남	380	2,983	1,376	1,879
제주	118	740	283	395
계	6,521	41,091	18,462	26,884
	47,612		45,346	
	51.2%		48.8%	

(단위: 명, %)

이와 같이 특수교육의 정책 방향과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시설의 재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7에 2019년도의 지역별 특수교육시설의 학급수의 현황을 종합하고, 특수교육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정비수요에 따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수와 특수학급의 학급수를 재구성하였다.

먼저,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급당 최소정원인 6명으로 나누어 소요학급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소요학급수를 특수교육정책 방향으로 재구성한다는 가정으로 Table 6에서 산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초등

5) 교육부(2017.12),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p.31, p.41

부는 사회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편성하고, 중고등부는 직업교육 등을 위한 특수학교로 편성하였다.

Table 7. Number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and classes for maintenance(2019)

지역	현황(2019년)				정비수요		
	특수 교육 대상자 (명) (A)	일반 학교 특수 학급수	특수 학교 학급수	일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학급	초·중·고등 일반 학교 특수학급수	중·고등 특수 학교 학급수	소요 학급수 (A/6명)
서울	12,779	1,358	801	2,159	1,090	1,039	2,130
부산	6,050	575	352	927	516	492	1,008
대구	4,874	454	274	728	416	396	812
인천	6,008	648	283	931	513	489	1,001
광주	2,871	275	197	472	245	234	479
대전	3,257	357	168	525	278	265	543
울산	2,579	265	157	422	220	210	430
세종	583	109	30	139	50	47	97
경기	21,802	2,955	867	3,822	1,860	1,773	3,634
강원	2,887	383	176	559	246	235	481
충북	3,981	468	257	725	340	324	664
충남	4,623	684	205	889	394	376	771
전북	3,696	421	224	645	315	301	616
전남	3,838	579	192	771	328	312	640
경북	4,976	624	251	875	425	405	829
경남	6,618	820	315	1,135	565	538	1,103
제주	1,536	130	94	224	131	125	256
합계	92,958	11,105	4,843	15,948	7,932	7,561	15,493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은 그 특수교육정원이 소수에 그치므로 본 표의 학급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소요학급수는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 기준정원(6명)을 나누어 산정하였다.

산출한 소요학급수와 현황 학급수(일반학교 특수학급+특수학교 학급)를 비교해보면, 소요학급이 더 필요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의 광역도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특수학교의 소요지수가 1미만 이었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특수학교수의 부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고등 교육을 특수학교로 재구성 하였을 시에는 현황에서 특수학교의 학급이 4,843학급이지만, 필요로 하는 학급수는 7,561학급으로 2,718학급의 재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집중이 높은 경기, 서울에서 특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3. 장애영역별 광역도시권 정비체계

본 절에서는 장애영역별로 특수교육시설의 지역별

정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단,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은 각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대상자는 대체적으로 경증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절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 학생에 대해 지역별의 정비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의 경우, 앞서 결과처럼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53.4%를 차지하고, 특수학교에서도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별 분포도 균등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 미만의 청각, 시각, 정서장애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도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8에서는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특수학교 현황을 정리하였다. 거기에 지역을 광역 도시권으로 정리하여 일부 희소장애 특수학교는 어느 정도의 지역까지 담당하고 있는지의 정비현황을 정리하였다. 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유형별 통합교육을 담당하므로 어떻게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도시권별로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천권: 5가지의 장애 영역 중 시각장애에 대한 특수학교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인천의 경우 정서장애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차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완을 하며, 경기와 인천의 경우 인접해 있는 서울의 특수학교를 통해 부족한 장애 영역(시각, 정서장애)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원권: 5가지의 장애영역 중 2가지의 영역(정서, 지체)의 특수학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도내에서 정서, 지체영역의 장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강원권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리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은 인접한 경기도, 충청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광역도시권의 횡단은 기본 생활권 밖이 되므로 대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충청권: 충북 이외의 도시(충남, 대전)의 경우 모든 장애 영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족

한 영역을 1차적으로는 지역별 특수교육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충북지역의 학교를 통해서 보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8. Distribution status of Special education facilities by region with disabilities(2019)

지역	지적 장애	정서 장애	지체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특수교육지원 C	
경기 인천	경기	30	1	3	2	0	25
	서울	15	3	5	4	3	13
	인천	6	0	1	1	1	6
	합계	51	4	9	7	4	44
강원	강원	5	0	0	1	1	18
	합계	5	0	0	1	1	18
충청	충남	6	0	1	0	0	15
	충북	4	1	2	1	2	11
	대전	3	0	1	0	1	5
	합계	13	1	4	1	3	31
전라	전북	6	0	2	1	1	15
	전남	6	0	0	1	1	23
	광주	3	0	1	0	1	3
	합계	15	0	3	2	3	41
경상	경북	7	1	0	0	0	24
	경남	9	0	1	0	0	22
	부산	12	0	1	1	1	6
	대구	4	1	2	1	1	5
	울산	3	0	0	1	0	3
합계	35	2	4	3	2	60	

(단위: 시설 수)

※ 신도시인 세종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제외함.

(4) 전라권: 전북, 전남, 광주 모두 정서장애를 위한 특수학교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남과 광주의 경우 2가지 영역에 결핍된 모습을 보인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전라권에서 정서장애를 위한 특수학교가 건립될 필요가 있다.

(5) 경상권: 경북과 경남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청각장애, 시각장애 영역에서 결핍된 모습을 보이며, 각각 정서장애와 지체장애가 한 학교씩 보유한 모습을 보인다. 그에 반해 경북과 경남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개 이상 배치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정서장애 영역에 대한 특수학교가 결핍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정서장애, 지체장애가 결핍된 모습을 보인다. 경상권에서 모든 장애영역의 특수학교를 가지고 있는 곳은 대구로서 인접 도시들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종합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 단위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에서 모든 장애 영역을 보완하지 못하는 지역(강원도, 전라도)도 존재한다. 전국에 19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한 장애영역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의 경우, 특수교육을 위한 설비가 잘 갖춰진 교육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통학시간의 과다와 통합교육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일반학교에 특수교육환경을 갖춘 병설특수학부의 설립도 해결방안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절대인구 감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장애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특수(特殊)한 교육]이 아니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육]으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현시점에서 특수교육시설 정비현황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아직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환경에 포커스 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정비와 통계상 주요영역 위주의 정비체계를 보인다.

본 논문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특수학교의 시설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방도시에서는 장애영역별로 불균등한 결과를 보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한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아직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지 않는 정비현황의 결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2) 앞으로의 특수교육시설의 방향

해외의 특수교육 사례를 비춰보면, 핀란드와 같이 편견 없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물론 장애의 한국도 이러한 통합교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에서 장애를 보는 사회적 편견과 장애판정 기준 등의 근본적인 기준 등 아직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특수교육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생애영역을 구분하여 초중등부는 사회통합교육을 중고등부에서는 직업 등의 전문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전문인재양성의 목표달성을 위해 학급단위의 개선이 필요하며, 본 논문의 결과와 같이 지역별로 소수학급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건축적으로 본다면, 소요학급수와 필요면적의 확장 등으로 단순히 보면 특수학교의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통합이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특수교육환경이 갖추어진 학급단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정한 지역 배치 원리를 고려한 특수교육시설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시설의 지역별 정비현황의 편차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설설립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정책과, 각 시도교육청의 통계자료 및 시설자료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영역별 현황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주요현황 및 정비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특수학교의 시설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방도시에서는 장애영역별로 불균등한 결과를 보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한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특수교육시설은 아직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지 않는 정비 상황을 보인다.

참고문헌

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9.9
2.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9 특수교육통계, 2019.6
3. 조찬목, 학교신설비 예산지원 기준 마련 - 교부면적 및 교부 단가 -, 한국교육개발원, 2014
4.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8~'22), 2017.12

논문투고일 2020.05.28, 심사완료일 2020.06.24, 게재확정일 2020.06.30.